



“세계치과인 만족할 총회 기대”

치협·FDI, 2013년 서울총회 최종 계약 체결

치협이 세계치과과의사연맹(FDI)과 오는 2013년 FDI 총회 서울 개최에 대한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이수구 협회장과 로베르트 비아나 FDI 회장은 11월 3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2013년 FDI 총회 개최와 관련,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고 남은 기간 국가별 홍보와 행사프로그램 마련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한 치협 국제담당 부회장과 김영선 부회장, 양정강 FDI 조직 준비위원회 위원장, 박영국 FDI 교육위원회 위원(치협 국제이사), 유석천 치협 총무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FDI를 대표해 비아나 회장이 참석했다.

비아나 회장은 이번 계약을 위해 지난 2일 방한, 총회 계약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최종 점검했으며, 한국 치과기자재 업체 방문, 문화유적지 답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은 이번 계약을 통해 2013년 FDI 총회 개최지로서 최종 공인 받았으며, 오는 2013년 8월 29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FDI 서울총회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 준비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그동안 치협은 지난 9월 4일 브라질에서 서울총회 유치를 확정지은 이후 FDI 측과 수차례에 걸친 계약내용 조율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전체에 대한 프로모션을 책임지는 권한을 따냈다.

FDI와 치협은 2013년 FDI 서울총회 성공개최의 분기점을 참가자 1만명으로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과 미주, 아시아 전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비아나 회장은 “이번에 두번째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이 FDI 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2013년에는 한국은 물론 FDI가 만족할 만한 총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수구 협회장은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2013년 총회의 성공개최 여부가 판기를 날 것”이라며 “한국 치과계의 격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치과인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치협 수가계약 체결 공단

3.6% 인상 합의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11월 4일 공단 NHC 룸에서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공단과 치협은 7차까지 가는 협상 끝에 지난달 18일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3.6%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가계약에 서명한 뒤 이날 이수구 협회장과 정형근 이사장이 체결식을 갖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내년도 수가계약에서 치과는 3.6% 인상으로 병원 1.0%, 약국 2.2%, 한방 3.0%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합의를 이뤄냈다.

이날 체결식에는 수가협회가 불발된 의협을 제외하고 이수구 협회장과 수가협상단 대표를 맡았던 우종운 보험담당 부회장을 비롯해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협 회장 등 5개 단체장들과 공단 및 단체의 수가협상단 대표가 참석했다.

각 의료단체장과 정형근 이사장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뒤 계약서를 상호 교환했다.

체결식 행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이번 협상은 그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진행됐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내년도 재정상황을 보더라도 보험료율 9% 인상이 불가피하다. 재정상황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하고 있지만 실상 내부를 들여다 보면 문제점이 많다”며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대가를 치루면서 적절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가입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최소한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보장해야 한다”며 “공단과 의뢰계 단체가 가입자 단체와 대화를 통해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한의협, 간협, 약사회 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 수가가 저평가 돼 있다면서 국민들을 실덕해사라도 전체 급여비용을 늘리면서 수가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치대 정원 축소 협의기구 제안”

이 협회장, 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 정중 참석 주장

이수구 협회장이 전국 치대 학장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원장들에게 치과의사 입학정원 축소를 공식 요청하고 공식 협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이 협회장은 11월 12일 경희대 치전원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제 66차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해 입학정원을 10% 줄여달라”고 제안했다.

이 협회장의 이날 발언은 현직 치협 회장이 전국 치대학장·치전원장에게 입학정원 감축을 처음으로 공식 제안한 것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개원환경과 지난 1월 보건사회연구원 발표된 '올해부터 치과의사 과잉 시작'이라는 연구 결과 등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 입학정원 감축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치의학계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 협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각 대학의 입학정원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 입학정원이 적은 대학은 교육 자체가 문제가 되는 만큼, 대학 사정에 따라 축소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축소한다면 서울대부터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치과의사가 10만명 선에 육박하는 일본의 경우 결국 치과의사가 망하는 국가가 됐다”며 “치과의사가 많아지면 치과계 전체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개원환경을 볼 때도 많아지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필훈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원장은 “현재 입학 정원이 750명인데 어느 정도 줄여야 하나?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다들 공감할 텐데 정원 축소대학은 재정적 손해를 보는 만큼 치협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 협회장은 “가능하다면 10~15%를 줄여서 엘리트 교육을 해 달라”면서 “현재 치협 집행부와 협회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손해를 보는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치협에서는 치대 입학정원 감축 문제와 관련해 치협과 전국 치대학장 및 치전원장이 참여하는 공식 논의 기구의 구성을 희망한다”며 “오늘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치협 치무위원회는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과 관련한 정책 문건을 협의회에 공식제출 했다.

ISO/TC 106 총회 2013년 서울개최 확정

FDI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선임·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 선정

치협 정기이사회



이수구 협회장이 2013년 FDI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에 선임돼 성공적인 총회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한다. 또 치과분야의 국제표준 제·개정을 논의하는 ISO/TC 106 총회의 2013년 서울 개최가 확정됐다.

아울러 2010년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는 김우성 이사장이 선정됐다.

치협은 지난 16일 정기이사회를 치협대회의실에서 열고 이날 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2013년 FDI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 총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 가동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가운데 이수구 협회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위원구성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차기이사회에서 결정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또 김경남 교수가 오는 2013년 ISO/TC 106 총회 개최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브리핑했으며, 서울 개최를 의결

했다.

ISO/TC 106 총회는 그해 FDI 총회 개최국에서 열리는 것이 관례지만 FDI 서울총회가 열렸던 지난 97년에는 한국에 치과표준관련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태국에서 개최 됐다.

아울러 지난 10일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2010년 올해인 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우성 스마일 재단 이사장을 수상자로 결정했다.

2011년 신년교례회는 1월 7일로 결정됐으며, 제 60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내년 4월 23일 치협 강당에서 개최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 47회 치협 종합학술대회 등록 후 참가하지 못해 보수교육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회원들에 대한 보수교육 점수 인정(안)의 건이 기타 토의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들에 대해서는 지부차원의 별도 위탁교육을 진행해 보수교육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